

동향과 이슈 2018-03

# 영리추구 플랫폼에서의 불평등과 진보적인 발전가능성:

영리추구 플랫폼은 사회적 신뢰와 연결, 노동,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슈/분/석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  
서울노동권익센터

## 영리추구 플랫폼에서의 불평등과 진보적인 발전가능성:

영리추구 플랫폼은 사회적 신뢰와 연결, 노동,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장)

### 1. 서론: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현재 대중적으로 공유경제라고 언급되는 현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출현하였다(Schor and Fitzmaurice, 2015). 플랫폼 경제라고도 불리는 이 부문은 숙박, 운송, 대인서비스, 내구 소비재와 같은 영역에서 광범위한 소비재와 서비스를 포괄하고 있다. 공유경제의 한 부분인 영리추구 플랫폼(for-profit platform)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와 자산 소유자를 조직하기 위해서 정교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모르는 사람(낯선 것)과의 교환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sup>1)</sup>을 통해 획득한 평가 순위와 평판 자료를 이용한다. 게다가 플랫폼은 거의 항상 고용에 대한 보호 없이 노동자를 독립계약자로 고용한다.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플랫폼은 각각 숙박과 교통 분야에서 자원을 공유하고 제공하는 에어비엔비(Airbnb)와 우버(Uber)이다. 청소, 집 안팎의 잡일, 이사, 가구 조립 등과 같이 홈서비스를 제공하는 태스크래빗(TaskRabbit)과 택클(Takl)과 같은 일반적인 노동 플랫폼들도 있다. 전문화된 노동 플랫폼은 애완동물 돌봄과 여타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양한 지불방식(임대, 대여, 증여 등)을 통해 어떤 플랫폼은 상품의 임대(예를 들면, 자동차) 또는 공간의 임대를 해결해준다면, 다른 플랫폼은 이웃 간에 내구재(예를 들면, 공구, 캠핑, 사진 장비)의 교환을 조직한다.

이러한 소비자 지향적 플랫폼의 출현은 수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플랫폼이 급속하게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행위와 영향력이 논란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플랫폼은 과연 노동자에게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고

1) 대중(crowd)과 외주화(outsourcing)의 합성어로, 생산·서비스 등 기업활동 일부 과정에 대중을 참여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반 대중의 참신한 아이디어나 의견 등을 모아 제품과 서비스를 만든 후 여기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참여자와 공유하는 것이다. 저널리스트 제프 하우(Jeff Howe)가 2006년 6월 잡지 <와이어드(Wired)>에 처음 소개했다.

크라우드소싱은 외부 자원을 활용해 창의력과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데다가 그 대상 범위를 크게 늘려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대중들로부터 십시일반 후원을 받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이나,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Wikipedia)도 크라우드소싱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크라우드소싱은 외부 업체에 위탁한 기존의 아웃소싱보다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해당 제품에 호의적인 잠재 고객까지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전문적 시각이 부족하고 지속적 관리와 유지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크라우드소싱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있는가(Reich, 2015)?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하고 있지는 않는가(Dubal, 2017)? 에어비엔비와 같은 숙박 사이트가 적정 가격 주택의 구입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Slee, 2015)? 경제적, 법적, 정책적 질문 이외에도 공유경제 부문은 사회분석가들의 수많은 이론적 선입견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던지는 이야기를 제공한다. 플랫폼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노동관계의 재구조화에 대한 이슈, 특히 불안정성(precaarity)의 증가와 기업으로부터 개인으로의 위험 전가의 문제를 제기한다(Hacker, 2008; Kalleberg, 2013; Scholz, 2013; Standing, 2011). 평가 순위와 평판 자료에 대한 클라우드소싱과 디지털 기술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기술이 신뢰와 사회적 연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과 관련이 있다(Turkle, 2012).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세 번째 연구 질문은 불평등과 관련이 있다. 플랫폼은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 특히 계급, 인종, 성에 기반을 둔 불평등을 개선하는가, 전환시키는가 또는 악화시키는가(Oliver and Shapiro, 2006; Piketty, 2014)?

플랫폼 경제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많지 않은데, 부분적으로는 플랫폼이 자신의 자료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이 현상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경험적 연구가 이뤄졌던 세 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경험적 연구문헌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2장에서는 개념 정의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대중적으로 공유경제라 알려져 있는 것의 실체는 무엇인가? 공유경제는 플랫폼이 촉진하고 있는 일종의 교환에 대한 정확한 용어인가? 공유경제는 일관된 분석적 범주를 제시하고 있는가? 그리고 3장에서는 신뢰와 사회적 연결에 대한 문제를 다룰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참여가 신뢰와 사회연결의 사회적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룬다. 4장에서는 노동의 문제를 다루는데, 플랫폼이 노동과정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노동자들은 플랫폼에서 자신들의 노동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5장에서는 불평등의 문제를 검토한다. 결론에서는 공유경제 부문의 진보적인 발전 방향과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과 함의를 검토할 것이다.

이 글은 외국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플랫폼이 작동하는 방식과 그것을 둘러싼 정치적·규제적 환경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이 짧은 글에서 전체 세계를 포괄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한정된 사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향후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아래에서는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 정의를 둘러싼 여러 논란들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파악하기 위해서 공유경제에 대한 역사적 배경에서 시작해서 개념 정의의 문제를 다룬다.

## 2. 공유경제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개념 정의의 복잡성

### 1) 공유경제의 기원과 역사적 배경을 둘러싼 논쟁

현재 ‘공유경제’라 알려져 있는 현상이 출현한 것은 일반적으로 에어비엔비와 우버가 설립된 2008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에 대한 기원이 되는 용어인 협력적 소비(collab-

orative consumption)는 경영컨설턴트에 의해 대중화되었고(Botsman and Rogers, 2010), ‘유휴 자원(idle capacity)’이라는 현상을 강조하였다. 주장의 핵심은 이러한 새로운 경제적 형태(클라우드소싱을 활용한 평판 자료를 가지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또는 앱<sup>2)</sup>]가 유휴자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따라서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탄소발자국<sup>3)</sup>을 줄이고 소유자의 웰빙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에어비엔비와 우버는 유휴자원(여분의 방,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 남는 시간)을 상품화하고 화폐화하는 데 성공했던 반면, 다른 초기의 혁신 사례들(Yerdle<sup>4)</sup>, Landshare<sup>5)</sup>, NeighborGoods<sup>6)</sup> 등)은 돈을 받지 않는 대여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다른 혁신들은 새로운 중고시장을 만드는데 플랫폼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혁신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이베이(eBay)<sup>7)</sup>와 크레이그리스트(Craigslist)<sup>8)</sup> 이후에 사용된 소비재 상품들의 교환(재순환형)을 촉진하는 사이트들(상품화·화폐화 형태[threadUP, SwapStyle], 기부 형태[Freecycle])이 크게 증가하였다(Schor and Fitzmaurice, 2015). 동시에 이 기간에 공유와 협력적인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비영리, 커뮤니티 기반의 활동들이 출현하였다. 이러한 것들에는 먹거리 교환(food swaps), 타임뱅크(time banks)<sup>9)</sup>, 리페어 컬렉티브(repair collectives)<sup>10)</sup>, 메이커스페이스(makerspaces)<sup>11)</sup> 등이 포함된다(Schor and Fitzmaurice, 2015; Schor, Fitzmaurice, Attwood

2) 이 글에서는 플랫폼이라는 용어와 앱이라는 용어를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한다. 에어비엔비와 태스크라빗(TaskRabbit)과 같이 플랫폼으로 시작한 기업들은 이제 앱을 보유하고 있다. 우버와 같이 다른 기업들은 항상 앱에 기반을 두고 있다.

3)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말한다.

4) 벼룩시장처럼 중고물품을 공유하는 서비스이다. 이 플랫폼은 자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포스팅함으로써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역할을 한다.

5) 정원(농토)경작의 공유 웹기반 프로젝트이다. 정원(농토)공유는 토지의소유자가 경작자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로컬푸드와 도시의 연결을 하며, 보통 앞마당과 뒷마당. 소유주에게 보상으로 수확물의 일부를 제공한다.

6) 인벤토리를 탐색하여 물건을 찾고 서로의 물건을 빌려주고 빌려쓰는 서비스이다. 잔디깎이 기계를 빌려주는 빌려쓴다.

7) 이베이는 1995년 인터넷 경매 사이트로 출발해 지금은 세계 최대의 종합쇼핑몰 및 전자상거래 중개 사이트로 성장한 미국 회사다.

8) 미국의 지역 생활정보 사이트에서 시작돼 2012년 현재 전 세계 80여 개국에 서비스되고 있는 온라인 벼룩시장

9) 타임뱅크 운동은 비시장경제 영역에서의 봉사활동을 시간적 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기록하고 저장, 교환함과 아울러 봉사자와 수혜자의 전통적인 역할 구분에서 벗어나 양자 간의 상호 호혜적인 봉사활동을 지향하는 운동이다. 즉, 1시간의 봉사활동=1타임 달러로 환산하여 모든 사람의 노동이 동등하다고 간주하며, 이 가치의 교환을 위해 가상의 화폐를 발행하기도 한다. 이 운동은 시장경제가 무너뜨린 가정과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전체 사회가 사회적 대가정을 이루는 것을 지향한다.

10) 공동 수리 운동. 고객이 점점 더 모든 수리 사업을 기업의 값 비싼 특약점에 와서 하라고 강요받는 상황에 대항하여 소비자 옹호 단체, 중소기업, 농장 단체, 컴퓨터 활동가 및 환경 보호 운동가가 플랫폼을 통해 통일되고 초당적이며 전면적인 공동 수리를 하는 “수리 좀 해서 쓰자(Right-to-Repair)” 권리운동을 말한다.

11) ‘메이커 운동(Maker Movement)’은 오픈소스 제조업 운동이다. 미국 최대 IT 출판사 오라일리 공동 창업자였던 데일 도허티가 만든 말이다. 그는 메이커 운동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2005년 DIY 잡지 <MAKE>를 펴냈다. 그는 메이커 운동이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드는 사람들, ‘메이커’(Maker)가 만드는 법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흐름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풀이했다. 이러한 메이커 운동을 떠받치는 물리적인 공간이 바로 ‘메이커스페이스(Maker Spaces)’라고 불리는 협업 공간이다. ‘테크숍’, ‘해커스페이스’, ‘팝랩’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메이커스페이스는 메이커의 사랑방 역할을 한다.

Charles, Carfagna, and Dubois Poteat, 2016). 이 두 집단(비영리 플랫폼과 영리추구 플랫폼)에 대한 연구문헌이나 연구질문은 구분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비영리-커뮤니티 기반 플랫폼이 아니라 영리추구 플랫폼을 대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공유경제란 용어가 에어비엔비와 리프트(Lyft)와 같은 플랫폼에 대한 기술어로서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발생했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sup>12)</sup> 공유경제의 기원과 역사가 어떻게든 간에, 공유경제라는 용어는 2010년경부터 협력적 소비라는 용어를 무색하게 만들고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공유경제 부문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플랫폼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다른 용어들<sup>13)</sup> 또한 증가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공유경제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플랫폼 설립자, 컨설턴트, 비영리기관 등은 ‘공유’ 리스트서브(단체 메일링)를 형성하였다. 2012년 1월에 프랑스에서 한 집단이 개방적인 협력과 공유에 기반을 둔 글로벌 커뮤니티를 창출하기 위해서 위셰어(OuiShare)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2012년 5월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중요한 ‘공유’ 컨퍼런스가 열렸다(Schor, 2014). 이러한 초기 활동들의 중요한 관점은 영리추구 플랫폼(Airbnb, Lyft, TaskRabbit 등)과 소규모의 비영리 플랫폼(repair collectives, tool libraries, time banks 등)을 포괄했다는 점이다. 특히 우버는 공유라는 용어와 물류회사로서 자기 동일시를 거부하면서 이러한 활동들에 참여하지 않았다(Schor, 2014). 따라서 실제로 공유경제에 대한 정의는 참여하는 단체들에 의해 자기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Schor, 2014). 거의 동일한 플랫폼이 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리프트(Lyft)는 공유경제 활동에 참여한 반면, 우버는 그러지 않았다. 심부름과 과업수행 관련 플랫폼인 태스크래빗은 참여했지만, 아마존(Amazon)의 메카니컬 투르크(Mechanical Turk)와 다른 디지털 노동 수행 관련 플랫폼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비일관성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역사는 공유경제 형성 담론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리고 이로 인해 대규모의 영리추구 플랫폼조차도 경제적 기회, 효율성, 사회적 연결, 긍정적인 생태학적 효과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강력한 주장<sup>14)</sup>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공유’라는 매우 긍정적인 상징에 의해 더 공고해졌다(Schor, 2014). 대규모의 이윤추구 플랫폼에게 비영리 친사회적 이니셔티브들과의 연합은 그들이 고객의 호감을 사로잡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사회적 편익에 대한 주장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윤추구 플랫폼이 고객의 호감도를 높이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반대로 비영리 플랫폼에게 있어서 자본화가 잘 되어 있고 영향력 있는 행위자들과의 연결은 확실히 매력적이다. 공유라는 용어 그 자체는 수행적인 것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Frenken and Schor, 2017; Richardson, 2015) 비판가에게는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Hill, 2015; Reich, 2015; Slee, 2015).

12) 2008년 하버드대학교의 로런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의 저서 『리믹스(Remix: Making art and commerce thrive in the hybrid economy)』에서 처음 사용했다는 주장과 공유경제의 기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니콜라스 존(Nicholas John)은 2007년과 2008년에 음악과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공유경제라는 용어의 사용례를 발견하였다(John, 2013). 레식(Lessig) 교수도 비화폐적 공유에 관련해서 이야기하였다. 명백하게 보이는 것은 공유경제란 용어가 에어비엔비와 우버가 설립되기 전에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역사와 사실은 공유경제가 오픈소스(open-source)운동과 협력적 온라인 실천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해석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13) 온디맨드 경제(on-demand economy), 접속 경제(access economy), 깃 경제(gig economy) 등

14) 물론 이러한 주장은 검증되지도 않고, 많은 경우에 사실이 아니었다.

## 2) 공유경제의 정의, 범위, 용어법을 둘러싼 복잡성

### (1) 개념 정의: 다양하고 변하고 있는 개념

이 시기 이후로 연구자들은 용어법과 정의에 대한 유용한 연구문헌을 생산해냈다. 여기서는 후자의 문제(정의)를 다룰 것이다. 쇼와와 피츠모리스(Schor and Fitzmaurice, 2015)는 공유경제 부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기준은 플랫폼이 영리추구인가 비영리인가 그리고 플랫폼이 P2P(peer-to-peer 또는 person-to-person)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리와 비영리의 구분이 중요하긴 하지만, 영리추구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다 많은 통제를 해왔고(이 글 4장 참조), 그렇게 함으로써 P2P 구조의 타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또 다른 접근은 협소화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공유경제 부문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것이다. 프렌켄, 미렌, 아레츠와 반 데 글린트(Frenken, Meelen, Arets, and van de Glind, 2015)는 협력적 소비라는 본래의 사고로 돌아가지만, 공유경제라는 용어를 소비자들이 서로 제대로 이용되지 않는 물리적인 자산(유희자원)에 대한 임의적인 접근을 허용하고 금전적인 목적을 위해서 접근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그들은 공유경제를 서로 다른 부분들(중고경제[the second-hand economy], 온디맨드 경제[the on-demand economy], 생산물-서비스 경제[the product-service economy] 등)로 설명한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또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러한 현상이 다면적 시장임을 강조한다. 즉, 플랫폼은 노동자와 소비자 모두를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Gawer, 2014). P2P 구조에 초점을 두는 접근법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접근법 또한 플랫폼이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를 증대시켜나감에 따라 적절성이 줄어들고 있다. 더욱이 ‘공유’라는 부문은 다면적 시장의 단지 한 형태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은 공유경제 부문을 설명하는 데 충분하지가 않다.

2016년에 미국 상무부는 ‘디지털 중개기업(digital matching firms)’의 네 가지 특성(① IT 시스템을 활용해 P2P 거래를 촉진, ② 사용자 기반의 평가 시스템을 통한 품질관리, ③ 디지털 매칭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에게 전형적인 노동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공, ④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도구 및 자산을 노동자가 제공하고 기업은 이에 의존)을 설명하면서 공유경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정의를 제안하였다(Telles, 2016). 이러한 기준은 너무나 폭넓다는 이유로 비판받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기준은 플랫폼이 자산을 제공(예를 들어, 차량공유 플랫폼은 운전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노동시간과 노동량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통제를 시작하면서 현실과 잘 들어맞지 않는 낡은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Rosenblat and Stark, 2015; Scheiber, 2017; Schor, Attwood-Charles, Cansoy, Ladegaard and Wengronowitz, 2017).

### (2) 범위의 규정: 이용자 실천 대 기술과 가치창출

공유경제의 범위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접근들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공유경제 그 자체

를 무언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경제를 디지털 경제라는 더 큰 맥락 속에 놓고 사고하는 것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연결은 온라인 세계, 특히 협력적 소프트웨어 운동(Benkler, 2006)과 타인과의 카풀, 분산컴퓨팅을 포함한 다른 형태의 공유(Benkler, 2004)에서 발전한 부분이다. 파일 공유, 비디오 포스팅, 음악 공유와 같은 온라인 실천들은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초기 참가자들에게는 기본적인 경험이었다(DuBois, Schor and Carfagna, 2014). 평가와 리뷰 사이트들(예를 들어, TripAdvisor) 뿐만 아니라 위키피디아(Wikipedia)와 같이 동료가 생산한 콘텐츠는 사람들이 평판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익숙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P2P 플랫폼들의 일부분은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며, 시장자본주의(market capitalism)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Benkler, 2006). 사이버유토피아주의(cyberutopianism)에 근거하고 있는(Turner, 2006) 이러한 접근법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공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크라우드펀딩, 비트코인, 협력적 소비 플랫폼)를 결합한다. 이 글에서 검토하고 있는 연구들이나 공유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sup>15)</sup>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양상들에서 공통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연구자들이 공유경제 부문을 다른 디지털 활동들과 함께 분류하는 두 번째 방식은 이용자 실천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술(특히 컴퓨팅[연산] 능력)과 기업의 가치창출 전략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켄니와 지스먼(Kenney and Zysman, 2015, 2016)은 자신들이 명명한 ‘플랫폼 경제’에 대한 논의하고, 에어비엔비와 우버와 같이 소비자 지향적인 기업들의 특성이 구글(Google), 애플(Apple), 아마존(Amazon),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거대 기술기업들의 발전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에어비엔비, 우버, 다른 소비 플랫폼 등은 경제의 대규모 재구조화 속에서 자그마한 행위자에 불과하다. 켄니와 지스먼(Kenney and Zysman, 2016)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플랫폼 소유자들이 **의견상** 초기 산업혁명 시기의 공장 소유자들의 힘보다 더 가공할만한 힘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제의 재조직화가 한창인 가운데에 있다 ..... 그 결과는 극적이다.” 하지만 그들은 공유가 부정확한 명칭이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새로운 플랫폼 경제는 사이버유토피안이 상상하던 대안이랄기보다는 선대제와 같이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더 중요한 점은 그 미래가 필연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선택이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점이다.

### (3) 용어법: 다의적 사용

마지막으로 ‘공유’가 영리추구 플랫폼에 의해 조직화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교환들에 대한 정확한 용어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비평가들은 대중적인 언론미디어를 통해 공유하는 용어에 대해서 혹평을 했고(Kalamar, 2013; Reich, 2015; Slee, 2015), 이러한 회의론은 학술연구 문헌에서도 재생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라베넬(Ravenelle, 2017)은 여분의 침실,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를 임대해주는 것은 합리적인 자본주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벨크(Belk, 2007, 2010, 2014)는 개념 정의상 공유는 화폐의 교환이 포함될 수 없고, 공유는 또한 선물의 교환

15) 예를 들어, 벤클러(Benkler)는 에어비엔비를 공유가 아니라 ‘소액 임대’로 생각한다.

과 함께 상품의 교환에도 반대한다고 주장한다.<sup>16)</sup>

벨크(Belk)의 입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아놀드와 로즈(Arnould and Rose, 2015)는 벨크의 입장이 의심스러운 방법론적 개인주의 가정에 빠져 있고, 근본적으로는 증여 관계(gift relation)의 속성과 공유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벤클러(Benkler, 2004)도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그에 따르면, 공유는 거래에 대한 재정적 차원의 존재 여부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사회적 공유’를 약하게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 간에 발생한 무언가로 규정한다. 연결된 사람들은 집합적 실천에 참여하고 있고, 공공선을 포함한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벨크(Belk)의 이론적 약점은 젤라이저(Viviana Zelizer)의 친밀함과 경제적 행위는 상호보완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화폐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논의(Zelizer, 1997, 2005) 뿐만 아니라 시장과 가족 측면에서 동기의 복잡성에 대해 분석한 폴버(Nancy Folbre)의 논의(Folbre, 2001)에서도 볼 수 있다. 벨크(Belk)는 젤라이저(Zelizer)가 ‘적대적인 세계관’(Zelizer, 2005)<sup>17)</sup>이라 칭했던 관점을 채택하여 대중적인 비유를 재생산한다. 벨크(Belk)의 관점과는 다르게 다른 연구자는 공유가 다양한 실천들을 포괄하는 다의어적인 용어라고 주장한다(John, 2013). 대개 어떤 플랫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묘사하기 위해서 공유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와 달리, 라베넬(Ravenelle)은 실질적인 자산이 없는 노동자들의 경우 공유라는 용어 사용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Ravenelle, 2016, 2017). 보다 일반적으로 판단해보면, 공유경제 부문에서 초기의 서비스 제공 형태들과 관련해서 교환이 점차 정상화되고 관계화됨에 따라 향후 공유라는 용어는 그 용어의 기호학적인 힘을 잃어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공유경제의 용어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안정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없다. 그리고 공유경제 부문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특성으로 인해 용어의 불일치와 용어를 둘러싼 논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 3. 플랫폼 경제 참여와 사회적 신뢰와 연결

플랫폼 경제에 참여한 사람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다양한 분과학문으로 산재되어 있으며, 이해관계라는 핵심적인 주제에 대해서도 잘 정리되지 않고 있다. 이 장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참여가 사회적 신뢰와 연결이라는 핵심적인 사회학적 변수들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를 다루고자 한다.

#### 1) 플랫폼 사용과 재정적인 이유

---

16) 벨크(Belk)는 공유를 호혜성의 차원으로 사고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

17) 젤라이저(Zelizer)는 ‘친밀함’의 세계와 ‘경제’의 만남이 불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사회적 관계 안에서 그 둘을 분리시키려 애쓴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을 ‘적대적 세계관’이라고 분류하고 있다. 그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모든 사회적 관계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거나 친밀함을 두꺼운 유리창을 가진 온실에서만 살아남는 민감한 화초로 생각하는 관점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한다.

한 가지 주제는 왜 사람들이 이러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가이다. 기업의 담론은 사회적 연결, 환경 영향의 감소, 저비용, 경제적 기회 등과 같은 공공선 주장들을 강조한다(Schor, 2014). 공공선 주장을 포함하여 참여자들이 영리추구 플랫폼에 참여하는 다양한 동기들이 있지만, 초창기부터 여러 국가들에서 이용자에 대한 연구들은 플랫폼 참여에 지배적인 유인은 재정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Balck and Cracau, 2015; Möhlmann, 2015).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플랫폼이 이전에는 상당했던 거래비용을 줄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브랜드화보다는 평가와 평판 시스템을 통해 낯선 사람과의 교환에서 비롯되는 위험을 완화할 것이라고 믿는다(Horton and Zeckhauser, 2016; Sundararajan, 2016). 다른 연구자들은 노동비용의 최소화(Hill, 2015; Scholz, 2016)나 규제회피 능력(Baker, 2014)을 지적하였다.

플랫폼 시장은 또한 저렴하고 질이 낮은 선택지(예를 들어, 전문적이지 않은 제공자와 저질의 싸구려 아파트에서의 숙박 등)를 제공할 수도 있다. 노동자 측면에서 보자면, 에어비엔비와 같이 자산에 기반을 둔 플랫폼은 상당한 양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Schor et al., 2017). 노동에 기반을 둔 플랫폼(차량운전, 배달, 심부름 등)은 이미 직업이나 다른 소득을 벌어들이는 활동(부업 등)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득 증가의 새로운 원천이 되었다. 공유경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또한 자신들이 이러한 앱의 편리성을 평가하고 재정적 거래는 직접적인 면 대 면이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에어비엔비에 대한 일부 연구들은 손님이 도착하기 전에 금전적 측면을 결정하는 것이 사회적 대화를 수월하게 하고 돈의 교환은 강력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대를 줄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한다(Ikkala and Lampinen, 2015; Lampinen and Cheshire, 2016).

## 2) 플랫폼과 사회적 신뢰 및 상호작용의 형성

플랫폼에서의 교환은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거래가 사회학에서 주요한 변수 중 하나인 사회적 신뢰를 형성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Parigi, State, Dakhallallah, Corten and Cook, 2013). 이 문제는 또한 플랫폼 참여 경험이 사회적 상호작용과 연결을 증대시키는가와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주제는 기술 그 자체가 사회적 상호작용과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보다 큰 담론 맥락 속에 있다. 이러한 담론은 대개 소셜미디어, 컴퓨터 게임, 인터넷과 같은 기술이 더 형편없고 열악한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고립, 사회 병리현상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것이다(Turkle, 2012).

플랫폼 경제는 대개 긍정적인 방식으로 낯선 사람들을 묶어내는 유익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특히 초기에 플랫폼과 참여자는 개인 간 교환의 양상과 낯선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형성하는데 있어서의 각각의 역할을 강조했다(Fitzmaurice et al., 2018). 플랫폼 참여자들은 비교를 하고 관계적인 유통 또는 서비스의 접점보다는 이러한 시장의 개인화를 선호한다. 숙소 임대 서비스는 이 분야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다. 영리추구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전에 수행된 카우치서핑(Couchsurfing)에 대한 연구는 이용자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도 한다는 점을 밝혔다(Parigi et al., 2013). 그러나 종단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사회적 연결은 약해지게 되는데, 구성원들이 플랫폼과 새로운 사회적 연계를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의 능력에 대한 환상이 깨졌기 때문이다(Parigi and State, 2014).

에어비엔비에 대한 일부 연구들은 플랫폼의 사회성의 양상들을 검토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용자들의 실천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Ikkala and Lampinen, 2015; Lampinen and Cheshire, 2016). 유사하게 한 연구에 따르면, 숙소에 오는 손님들이 외국에서 주로 오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손님에 대해서 위험한 타자라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에어비엔비 주인들은 편안하게 이국적 정취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반기고 있었다(Ladegaard, 2018). 라베넬(Ravenelle)은 에어비엔비 이용자들을 젤라이저(Zelizer)가 ‘상업의 순환’이라 불렀던 것, 즉 시장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지만 견고한 사회적 연결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형태의 사회적 네트워크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Ravenelle, 2016). 쇼와(Schor)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상호작용은 적어도 절반 정도의 에어비엔비 주인들과 일부의 테스크래빗(TaskRabbits)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동기였다(Schor, 2015). 이 연구는 에어비엔비 주인들이 손님들과 사귀고, 먹고, 마시고, 도시를 관광하고, 견고한 우정을 쌓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연구는 일부 주인들과 손님들이 사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보여주고 있다. 라베넬(Ravenelle)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기대가 작기 때문에 일부 에어비엔비 주인들은 카우치서핑보다 에어비엔비를 선호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Ravenelle, 2017).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대한 중요한 질문은 숙박 플랫폼들이 정상화되고 많은 초기 이용자들의 이데올로기적 동기가 재정적 동기에 의해 대체됨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인 성격이 줄어들고 개인적인 성격이 늘어나고 있는가이다.

### 3) 플랫폼이 사회적 삶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신뢰, 상호작용, 그리고 일상생활의 상품화

산타나와 파리기(Santana and Parigi)의 연구는 공유경제에 대한 경험이 신뢰와 사회적 관여의 중요한 요소인 위험에 대한 허용치(내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Santana and Parigi, 2015). 많은 플랫폼들이 낯선 사람들과 교환을 하는 것이 사람들 간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 연구는 교환의 빈도, 플랫폼에 머무르는 시간, 사이트 접속자 수 모두가 제기된 위험에 대한 회피 효과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교환의 만족도가 위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낯선 사람들과의 많은 교환이 사람들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는 지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냈다.

사회적 신뢰와 연결에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화폐화 되지 않았던 일상의 관행들(호의 베풀기, 가족과 친구 초대/접대하기 등)에 점점 더 개입하기 시작함에 따라 이러한 관행들이 약화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플랫폼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는 사람들이 일단 적극적인 소득자가 되면 ‘이타적인 자산과 기술의 공유’를 줄인다고 보고 있다(Monroy-Hernández, 2014).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효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검증

되지는 않았다.

사회적 신뢰, 사회적 상호작용, 일상생활의 상품화라는 주제는 플랫폼 경제의 속성과 그것이 사회적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플랫폼이 영국의 산업혁명 시기에 공장의 출현과 관련된 힘과 비견되는, 또는 그보다 더 큰 역사적으로 중요한 힘의 축적을 나타낸다는 켄니와 지스먼(Kenney and Zysman, 2016)의 견해가 옳다면, 우리는 플랫폼이 심오한 방식으로 사회적 삶을 재형성시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하나는 상품화된 교환을 일상생활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플랫폼에서의 교환은 새로움이 바래지고 관례적인 서비스 제공과 유사해지고 있다는 증거를 고려했을 때 중요하다. 성찰적이지 않은 적대적 세계관(Zelizer, 2005)을 회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의 상품화는 이러한 경향이 단지 낯선 사람들뿐만 아니라 잘 알려진 타자(친구, 가족, 약한/강한 사회적 연계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한다.

#### 4. 플랫폼과 노동관계

##### 1) 긍정적 관점 대 부정적 관점

플랫폼 경제에서 노동관계는 논란이 많은 주제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지점은 공유경제가 재창조된 상상의 자본주의를 상징한다는 점이다(Hill, 2015; Ravenelle, 2016, 2017; Slee, 2015). 다만 차이는 연구자들이 이러한 제도적 배열이 효율성을 개선할 것인지 여부, 그것이 소득자(노동자)의 조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신뢰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차이가 드러나는 지점의 한 쪽에는 경제학자들이 있다. 예를 들어, 선다라라잔(Sundararajan, 2016: 176)은 플랫폼 경제를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미시적 기업가의 네트워크 사회’라고 묘사한다. 그리고 그는 정책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믿고는 있지만, 권한을 부여하고,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전환으로서 ‘고용의 종언과 크라우드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의 등장’을 환영한다.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많은 경제학자들은 공유경제 부문을 효율적인 것으로 이해했고, 따라서 긍정적인 발전으로 보았다(Horton and Zeckhauser, 2016). 다른 설명은 불안정하고 착취적인 조건들(Hill, 2015; Slee, 2015)과 무력화된 노동자들이 점점 더 강력해지는 플랫폼과 마주하게 되는 신자유주의적 디스토피아의 가능성을 강조한다(Scholz, 2016).

쇼와 등(Schor et al)이 2013~2017년 동안 공급자(provider)와 진행한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경쟁의 강화, 노동자에 대한 플랫폼의 통제 강화, 일부 플랫폼에서의 소득의 저하, 특히 시장의 저임금 부분에서 소득의 감소를 발견하였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자신의 소득, 노동조건, 전반적인 경험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Schor et al., 2017). 플랫폼 노동자들은 일하는 데 끌어들이는 자산과 이러한 소득의 흐름에 대한 노동자들의 의존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위치에 서게 된다. 이러한 차원들은 어떤 노동자들은 플랫폼 노동을 찬미하는 반면, 다른 노동자들은 플랫폼 노동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이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이러한 동학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을 임금 정체, 각종 혜택을 받는 정규직 고용의 쇠퇴, 한시적이고 불안정한 노동의 출현이라는 역사 속에 넣고 보아야 한다(Kalleberg, 2013; Standing, 2011; Vallas and Prenner, 2012). 카츠와 크루거(Katz and Krueger)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5~2015년 사이의 순고용 성장은 모두 대체 가능한 노동, 즉 비표준적인 노동 배열에서 있었고, 온라인 중개기관들이 현재 모든 노동자들의 절반을 고용하고 있었다(Katz and Krueger, 2016). 이러한 결과는 플랫폼이 기술적인 필요조건에 따라 고용을 하기 보다는 비용이 많이 드는 고용을 회피한 결과인 것처럼 보인다. 포스트 경제위기 시대에 노동의 취약성은 열악한 노동조건 하에서도 플랫폼이 양질의 노동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점은 기업이 플랫폼을 하청업자와 소비자들에게 위험을 외부화하면서도 노동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맥락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동학은 우버의 사례에서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우버는 노동통제 관행과 반독점법의 잠재적인 위반으로 인해 비판을 받았다(Gershman, 2016; Scheiber, 2017). 이 자본주의 최신판은 기술 혁신이라는 구실로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약화시키고, 부족한 일자리를 놓고 노동자들이 서로 다투는 바닥으로의 경쟁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Hill, 2015). ‘플랫폼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은 생산수단을 되찾았지만, 그 결과 생산관계(플랫폼 경제에서는 네트워크 구조가 해당)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였다(Scholz, 2016). 이러한 관계는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되고 기능은 알지만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없는 블랙박스과 같이 되기 때문에, 노동자, 소비자, 규제자가 플랫폼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Pasquale, 2015).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어렵다.

## 2) 플랫폼 노동 경험의 다양성

### (1) 플랫폼 소득 의존과 노동경험의 차이

다른 한편, 노동자들은 플랫폼 경제 하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다(Schor et al., 2017). 쇼와 등(Schor et al)의 연구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에 대한 만족도는 노동자가 플랫폼 소득을 통해 자신의 기본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플랫폼 소득에 대한 의존 정도와 관련이 있다. 의존도는 플랫폼 노동자가 일하는 시간, 장소, 일자리에 대한 선택, 일자리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영향을 미친다. 한 연구에서 6개 플랫폼의 102명의 소득자 표본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6%는 주요 소득원으로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고, 43%는 부분적으로 의존적이며, 32%는 보조적인 소득원이었다(Schor et al., 2017). 2016년 킥(gig) 노동에 대한 전국 조사에 따르면, 26%는 자신들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킥 노동을 통한 소득에 의존한 반면, 42%는 킥 노동을 수행하는 것은 좋지만, 킥 노동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킥 노동자의 44%는 전일제(full-time)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다(Smith, 2016). 이러한 높은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독립 노동자가 보통

전일제 일자리에 의존하고 있거나 재정적 안정성과 수익을 제공하는 다른 소득원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플랫폼 경제는 다른 부문과 사용자들에게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만약 전일제 고용, 특히 각종 급여를 제공하는 전일제 고용이 지속적으로 쇠퇴한다면, 플랫폼은 만족한 노동자를 재생산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 (2) 임금과 소득 수준

플랫폼 경제에서 임금과 소득 수준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일부 에어비엔비 주인들은 1년에 10,000명 이상의 손님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배달원들은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버는 날도 꽤 있다. 우버 기사들의 소득은 기업, 요금 인하, 어설픈 홍보활동 등에 의한 거짓 주장 등으로 인해 특수한 쟁점을 가지고 있다. 2017년 1월에 우버는 기사들의 소득에 대해서 기만적인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미연방무역위원회로부터 감사를 받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논쟁이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존경받는 노동경제학자인 크루거(Krueger)가 기업의 후원을 받아 작성한 보고서였다. 그는 우버 운전자들이 보상을 잘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홀과 크루거(Hall and Krueger)는 우버엑스(UberX) 운전자들(일반적인 택시기사와 비교가능한 집단임)이 시간당 16.89~18.31 달러를 벌었다고 보고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뉴욕(New York)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그들은 관례적인 택시보다 높은 이용률을 보였고, 이는 우버의 기술에 따른 결과였다(Hall and Krueger, 2016). 그러나 홀과 크루거(Hall and Krueger)의 계산은 운전자들이 책임을 지고 있는 상당 수준의 경비를 제외한 결과였다. 2015년 우버 자료에 대한 자체 분석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큰 세 개의 시장(Denver, Detroit, Houston)에서 우버 운전자들은 제반 경비를 제외하고 시간당 평균 13.25 달러를 벌고 있었다. 그리고 우버가 제공한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자료와 방법론으로 동일한 시장을 분석한 결과 세 시장에서 운전자들은 경비를 제외하고 각각 시간당 13.17 달러(덴버), 10.75 달러(휴스턴), 8.77 달러(디트로이트)를 벌고 있었다(O'Donovan and Singer-Vine, 2016).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수한 보상이라는 주장이 가장 큰 플랫폼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고, 노동자들은 효율성 수익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3) 플랫폼 노동자의 분류

임금문제 못지않게 플랫폼 노동자의 분류는 논쟁의 지점이였다. 거의 모든 플랫폼은 노동자를 표준적인 고용관계에서 보장되는 권리와 보호, 각종 급여가 부재한 독립계약자로 지정하고 있다(Bernhardt, 2014; Dubal, 2017; Hill, 2015; Irwin, 2016; Tomassetti, 2016). 이 문제에 대해서 노동자 스스로도 혼재된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한 조사에서는 플랫폼 소득자의 68%가 스스로를 단지 소비자 또는 고객과 연결하기 위해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독립적인 노동자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26%는 스스로를 피고용인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Smith, 2016).

#### (4) 플랫폼 노동에 대한 통제: 정보와 권력의 비대칭성

표준적인 고용보호와 노동조합이 부재한 가운데 플랫폼은 참여를 둘러싼 규칙을 정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플랫폼은 이러한 힘을 일상적으로 발휘하고 있다. 기업의 커뮤니케이션과 온라인 포럼에 대한 로젠블랫과 스타크(Rosenblat and Stark)의 연구는 운전자를 통제하기 위해서 우버가 활용한 다양한 기술들(통보, 성과 메트릭스, 감시, 처벌 등)을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양자 사이의 정보와 권력의 비대칭성을 강조한다(Rosenblat and Stark, 2015). 플랫폼은 일방적으로 계정을 정지시킬 수 있고, 시장으로부터 노동자를 배제할 수 있다. 2017년에 우버가 운전자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행동경제학과 게임 요소를 적용하는 방식이 드러났다(Scheiber, 2017). 플랫폼 권력의 또 다른 사례는 2014년 태스크래빗 피벗(TaskRabbit pivot)<sup>18)</sup>이었다. 플랫폼이 운영되고 과업이 할당되는 방식의 변화는 많은 제공자들에게는 매우 불행한 것이었다(Schor, 2015). 포스트메이츠(Postmates)와 페이버(Favor)의 음식배달원들은 주문배달 부문으로 진입하도록 했던 수익성이 좋은 차량공유 시장에서 경쟁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우버 또한 우버풀(UberPOOL, 차량합승)의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일반적인 다른 기사들보다 저렴한 요금을 받는 운전자들을 요구하고 있다(Attwood-Charles, 2017).

#### (5) 플랫폼 노동자들의 위험과 안전

플랫폼 노동자들은 또한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적어도 세 가지 측면(신체적 위험, 법적 위험, 플랫폼 위험)에서 취약하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낯선 이들은 차량으로 부르거나 낯선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스스로를 신체적인 위험 상황에 노출시킨다. 라베넬(Ravenelle)은 뉴욕시에서 많은 운전자들과 온디맨드(주문형, on-demand) 노동자들이 위험하고, 불법적이거나 안전하지 않은 과업 또는 상황에 직면해왔다고 주장한다(Ravenelle, 2016, 2017). 예를 들어, 불법적으로 마약을 운반하는 운전자로 채용되고, 여러 가지 불안정한 과업을 위해 운전자들이 채용되기도 하였다. 심지어 특권이 있는 공급자들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에어비엔비 주인들은 자신들의 집이 훼손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기도 한다. 필요에 의해서 이 시장에 진입했던 공급자에게 이러한 상황은 충격적인 경험이 될 수도 있다.

#### (6) 노동조건과 저항

공유경제에서 노동조건은 플랫폼에 따라, 지역에서 공유경제 부문이 얼마나 오랫동안 적극적이었는가에 따라, 공급[제공]자의 자산과 기술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다(Attwood-Charles, 2017; Cansoy and Schor, 2016). 수요가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에어비엔비 주인은 높은 임

---

18) 많은 스타트업들이 운영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바꾸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피벗(pivot)이라 말한다.

대료를 요구할 것이고 숙박 신청을 승낙하라는 압박을 거의 느끼지 않는 반면, 포스트메이츠의 음식배달원은 배달요금 5달러를 벌기 위해서 몇 시간을 대기할 수도 있다. 공유경제의 공식적인 개방성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을 자산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층으로 들여보내기에는 진입 장벽이 있다. 플랫폼 경제에서 참여자들의 교육 수준, 사회적 계급 등이 다양하듯이 소득과 노동조건 또한 다양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아마도 최근에 플랫폼 경제 노동자들과 규제자들로부터 각종 저항들(파업, 항의행동, 규제 전쟁 등)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Edelman and Geradin, 2016; Gershman, 2016; Interian, 2016).

많은 증거들은 노동강도 강화와 노동조건 악화를 보여주고 있다. 플랫폼 간 경쟁, 가격 전쟁, 거래량 증대 압박은 임금을 하락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위협으로 작동하였다. 이러한 추세의 지속 여부는 이 부문에 대한 진입과 이탈이 손쉽게 때문에 비플랫폼 노동시장에서의 조건에 의해 상당 부분 결정될 것이다. 플랫폼은 고진로 전략과 저진로 전략으로 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플랫폼이 공동의 보조를 맞추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 5. 공유경제에서의 불평등

플랫폼이 내세우는 공공선 주장 중의 하나는 플랫폼이 심각한 자금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회의 확장은 플랫폼의 수사학에서 중심적인 것이다. 플랫폼이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기회의 확장이라는 담론은 플랫폼이 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지는 못했다. 플랫폼은 또한 다양한 형태의 계급 불평등 문제를 제기한다. 손가락을 클릭하는 것만으로 값싼 노동력을 이용가능하게 만듦으로써, 플랫폼과 앱은 약간 운이 더 좋은 사람들의 일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동조건이 열악하든 아니든 가리지 않고 저임금을 받고 플랫폼에 고용되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

### 1) 플랫폼 참여자와 불평등 문제

불평등에 대해서 사고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은 누가 참여하는가, 특히 플랫폼이 바람직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에 참여자를 확인하는 것이다. 플랫폼 1세대 이용자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는 젊은 사람들이었다(Cansoy and Schor, 2016; Schor, 2017; Smith, 2016). 시간이 지나면서 참여자 층은 보다 다양해졌다. 예를 들어, 에어비엔비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손님을 유치하지는 못했지만, 가난하고 교육수준이 높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일반적인 것이 되었다(Quattrone, Proserpio, Quercia, Capra, and Musolesi, 2016). 한 조사에 따르면, 깃(gig) 노동자들 중 거의 58%는 적어도 대학 졸업, 23%가 현재 대학 재학 중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평균 교육수준보다 배 이상 높은 결과이다. 하지만 전일제 고용 비중과 고졸 이하 학력자 비중은 미국 평균과 거의 유사하다. 깃(gig) 노동자들은 연간 30,000 달러 이하의

소득을 불균형적으로 벌어들이고 있다. 그러나 많은 참여자들이 재학 중이거나 시간제로 일하거나 비정황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결과는 아니다(Smith, 2016).

## 2) 플랫폼과 다양한 차별의 양상들

플랫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다양성이 인종, 계급, 젠더 불평등을 제거하지는 못할 것이다. 실제로 플랫폼 경제가 차별로 가득 차 있다는 많은 결과들이 있다. 에어비엔비 시장에서 제공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인종적인 차별이 존재한다. 한 보고서는 에어비엔비 웹사이트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인종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흑인 주인들은 비흑인 주인보다 12%나 낮은 숙박 요금을 받았고, 탐탁지 않은 위치로 인해 높은 패널티를 받아 고생했다(Edelman & Luca, 2014). 또 다른 연구도 비슷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소수인종 출신의 주인은 다수인종 출신의 주인이 받는 요금에 비해 3.2% 낮은 금액을 받고 있었다(Laouenan and Rathelot, 2017). 비백인 주인은 자기 자산에 대해 낮은 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낮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Cansoy and Schor, 2016). 이러한 결과들은 비백인 범주 내 특정 하위집단에서도 유지되고 있었다.

감사 결과를 활용한 한 연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손님은 주인에 의해 거부될 가능성이 16% 이상이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Edelman, Luca and Svirsky, 2017). 이 연구 결과가 공론화되자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거부당한 경험을 인터넷에 말하기 시작했고 기업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상업호텔과는 달리 여기에는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Ravenelle, 2016, 2017). 더욱이 이러한 차별은 에어비엔비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다른 플랫폼의 경우도 유사한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 우버X 운전자들은 승차자가 아프리카계 미국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백인-유럽계 이름을 가진 사람에 비해 2배 정도 높게 일거리가 취소되었다(Ge, Knittel, MacKenzie, and Zoepf, 2016). 또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우버X를 이용하는데 29~35% 이상을 더 기다려야 했다. 이 연구는 젠더 차별 문제도 다루고 있다. 여성 고객은 남성에게 비해 더 많이 기다리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Ge, Knittel, MacKenzie, and Zoepf, 2016). 다른 연구에 따르면, 주인이 손님을 걸러내는 다양한 선별 기능들이 활용되고 있다. 이 선별 기능을 통해 손님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한다. 높은 교육수준, 자가 소유, 출신지, 인종, 나이 등이 선별 기능에서 활용되고 있다(Ravenelle, 2016, 2017).

플랫폼 경제는 계급 기반 차별과 불평등을 증대시키고 있다. 쇼와(Schor)에 따르면, 플랫폼의 동학은 소득분배의 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리하고 상층에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다(Schor, 2017). 첫째, 많은 제공자들이 전일제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 플랫폼은 소득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수행하는 노동은 다른 사람이 소득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보인다. 둘째, 많은 제공자들은 교육수준이 높고, 그들은 청소, 운전, 여타 육체노동과 같이 전통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노동자들이 수행했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쇼와(Schor)의 분석은 모든 가능한 효과들에 대해서 완전한 설명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플랫폼은 어떤 종류의 노동에 대한 수요를 늘릴 수도 있다. 하지만 노동력 대체도 일어나고 있다. 특히 숙박과 차량공유 부분에서 그렇다(Zervas, Proserpio and Byers, 2016). 이러한 주장은 저소득 가계가 P2P 차량임대와 같이 자산 임대 제도로부터 불균등하게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예측(Fraiberger and Sundararajan, 2017)과는 대비된다. 이들의 분석은 저소득 가계가 임대해줄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많은 저소득 가계들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소득 수준이 높은 소비자들이 인계받기를 원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낮다.

## 6. 토론: 공유경제의 진보적 발전 가능성

공유경제는 협력과 상호의존이라는 수사로 시작되었다. 많은 참여자들은 공유가치를 표방하고, 이러한 시장 참여를 글로벌 기업경제에 비해 개인화되고 인간적인 시장을 창출하는 시도로 보고 있다(Fitzmaurice et al., 2018). 하지만 공유경제 부문에서 변화에 직면하여 이러한 이상을 유지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 노동자들에 대한 조건들은 악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플랫폼 자본주의는 효율성 수익을 확산하고 공정하게 수익을 확대하는 대신에 표준고용관계에 미달하는 노동을 제공하고 하위 계층 내에서 불평등을 증대시키고 있다(Schor, 2017). 규모가 큰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행위자(영리추구 플랫폼)인 에어비엔비와 우버는 독점의 길로 향하고 있다(Pasquale, 2016). 공유경제의 발전 궤적과 방향에 대해 비판적인 연구들은 중세 봉건제 하에 농노제와 닮은 신자유주의적 사회 혹은 중세적인 기술봉건주의(techno-feudalism)를 지적하고 있다(Hill, 2015; Scholz, 2016; Slee, 2015).

하지만 여러 저항 활동들이 진행 중이다. 플랫폼 경제의 위계에서 최상층에 위치한 소득자(노동자)들은 그럭저럭 만족할지도 모르지만, 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저임금의 불안정한 노동을 하고 있다(Ravenelle, 2016, 2017).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우버 운전기사들은 노조를 조직하려고 하고, 다른 제공자들은 소셜미디어와 다른 채널을 통해 의사소통하고 조직화하고 있다. 또 다른 발전 형태는 노동자들이 플랫폼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플랫폼 협동조합주의다(Scholz, 2014). 솔츠(Scholz)는 플랫폼 협동조합이 노동조건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플랫폼 협동조합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운동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이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sup>19)</sup> 일단 플랫폼이 시장에 의해 지배되면 공유경제 부문에서도 강압적인 압력이 발생하고, 이는 신규 진입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한다(Pasquale, 2013). 이러한 힘에 대응하기 위해서 플랫폼 협동조합은 독점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를 정치적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Ahsan, 2015). 마지막으로 공유 플랫폼은 집합적인 의사결정과 시민의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거버넌스 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McLaren and Agyeman, 2015). 지자체 수준에서 공유경제를 규제하려는 노력들은 현재 서울과 암스테르담과 같은 일부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들 도시들은 공식적으로 스스로를 ‘공유도시’로 지정하고 있다.

이 글은 경험적 연구에서 다뤘던 공유경제 영역을 중심으로 공유경제가 미치는 사회적 영

19) <http://platformcoop.net/> 참조

향을 신뢰, 노동, 불평등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다른 중요한 주제들, 예를 들면 생태학적 영향과 같은 문제를 다루지는 못했다. 플랫폼은 녹색을 강조해왔고, 많은 참여자들은 공유가 정의상 녹색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차량 공유 앱이 교통량을 증가시키고 있고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멀리하게 만든다는 증거도 많아지고 있다(Fitzsimmons and Hu, 2017). 플랫폼이 주택의 이용과 구입, 도시문화에 미치는 영향, 공유경제 부문에 대한 법적 규제와 정책과 같은 주제들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공유경제에 대한 여러 논의들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확실한 것은 공유경제는 다양하고, 복잡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실체라는 사실이다.

## 참고문헌

- Ahsan, Kamil (2015). “Virtual Labor Organizing: “There’s an App For That”.” *In These Times* (June 19). <[http://inthesetimes.com/working/entry/18089/virtual\\_labor\\_organizing\\_theres\\_an\\_app\\_for\\_that](http://inthesetimes.com/working/entry/18089/virtual_labor_organizing_theres_an_app_for_that)>
- Arnould, Eric J. and Alexander S. Rose (2015). “Mutuality: Critique and Substitute for Belk’s “Sharing”.” *Marketing Theory*. 16(1): 75-99.
- Baker, Dean (2014). “Don’t Buy the ‘Sharing Economy’ Hype: Airbnb and Uber are Facilitating Rip-offs.” *The Guardian* (May 27).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4/may/27/airbnb-uber-taxes-regulation>>
- Balck, Birte. and Daniel Cracau (2015). “Empirical Analysis of Customer Motives in the Shareconomy: A Cross-Sectoral Comparison.” Working Paper No. 2/2015. Otto von Guericke University Magdeburg. Faculty of Economics and Management. <[http://www.fww.ovgu.de/fww\\_media/femm/femm\\_2015/2015\\_02-EGOTEC-fffac3ecc88b12e16a19a7b0b7850c86.pdf](http://www.fww.ovgu.de/fww_media/femm/femm_2015/2015_02-EGOTEC-fffac3ecc88b12e16a19a7b0b7850c86.pdf)>.
- Belk, Russel (2007). “Why Not Share Rather Than Own?.”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11(1): 126-140.
- Belk, Russel (2010). “Shar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6(5): 715-734.
- Belk, Russel (2014). “You Are What You Can Access: Sharing and Collaborative Consumption Onlin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7(8): 1595-1600.
- Benkler, Yochai (2004). “Sharing Nicely: On Shareable Goods and the Emergence of Sharing as a Modality of Economic Production.” *The Yale Law Journal*. 114(2): 273-358.
- Benkler, Yochai (2006). *The Wealth of Networks: How Social Production Transforms Markets and Freedom*.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국역: 최은창 옮김, 『네트워크의 부 : 사회적 생산은 시장과 자유를 어떻게 바꾸는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 Bernhardt, Annette. (2014). “Labor Standards and the Reorganization of Work: Gaps in Data and Research.” IRLE Working Paper No. 100-14. <<https://cloudfront.escholarship.org/dist/prd/content/qt3hc6t3d5/qt3hc6t3d5.pdf>>
- Botsman, Rachel and Roo Rogers (2010). *What's Mine is Yours: The Rise of Collaborative Consumption*. New York, NY: Harper(국역: 이은진 역, 『위 제너레이션 : 다음 10년을 지배할 머니 코드』, 푸른숲, 2011).
- Cansoy, Mehmet and Juliet B. Schor (2016). “Who Gets to Share in the “Sharing Economy”: Understanding the Patterns of Participation and Exchange in Airbnb.” Unpublished paper. Boston College. <[https://www.bc.edu/content/dam/files/schools/cas\\_sites/sociology/pdf/SharingEconomy.pdf](https://www.bc.edu/content/dam/files/schools/cas_sites/sociology/pdf/SharingEconomy.pdf)>
- Dubal, V. B. (2017). “Wage Slave or Entrepreneur?: Contesting the Dualism of Legal Worker

- Identities.” *California Law Review*. 105(1): 65-126.
- Dubois, Emilie A., Juliet B. Schor, and Lindsey Carfagna (2014). “New Cultures of Connection in a Boston Time Bank.” in Juliet B. Schor and Craig J. Thompson (eds.). *Sustainable Lifestyles and the Quest for Plenitude: Case Studies of the New Economy*. pp. 95-124.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Edelman, Benjamin G. and Damien Geradin (2016). “Efficiencies and Regulatory Shortcuts: How Should We Regulate Companies Like Airbnb and Uber?” *Stanford Technology Law Review*. 19(2): 293-328.
- Edelman, Benjamin G. and Michael Luca (2014). “Digital Discrimination: The Case of Airbnb.com.” Harvard Business School Working Paper (14-054). <[https://www.hbs.edu/faculty/Publication%20Files/Airbnb\\_92dd6086-6e46-4eaf-9cea-60fe5ba3c596.pdf](https://www.hbs.edu/faculty/Publication%20Files/Airbnb_92dd6086-6e46-4eaf-9cea-60fe5ba3c596.pdf)>.
- Edelman, Benjamin, Michael Luca, and Dan Svirsky (2017). “Racial Discrimination in the Sharing Economy: 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9(2): 1-22.
- Fitzmaurice, Connor J., Isak Ladegaard, William Attwood-Charles, Mehmet Cansoy, Lindsey B. Carfagna, Juliet B. Schor, and Robert Wengronowitz (2018). “Domesticating the Market: Moral Exchange and the Sharing Economy.” *Socio-Economic Review*. mwy003. <<https://doi.org/10.1093/ser/mwy003>>.
- Fitzsimmons, Emma G. and Winnie Hu (2017). “The Downside of Ride-Hailing: More New York City Gridlock.” *The New York Times* (March, 6). <<https://www.nytimes.com/2017/03/06/nyregion/uber-ride-hailing-new-york-transportation.html>>.
- Folbre, Nancy (2001). *The Invisible Heart: Economics and Family Values*. New York, NY: New Press(국역: 윤자영 역, 『보이지 않는 가슴: 돌봄 경제학』, 또 하나의 문화, 2007).
- Fraiberger, Samuel P. and Arun Sundararajan (2017). “Peer-to-Peer Rental Markets in the Sharing Economy.” NYU Stern School of Business Research Paper (First version March 2015; current version September 2017).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574337##](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574337##)>.
- Frenken, Koen and Juliet B. Schor (2017). “Putting the Sharing Economy into Perspective.” *Environmental Innovation and Societal Transitions*. 23: 3-10.
- Frenken, Koen, Toon Meelen, Martijn Arets and Pieter van de Glind (2015). “Smarter Regulation for the Sharing Economy.” *The Guardian* (May 20). <<https://www.theguardian.com/science/political-science/2015/may/20/smarter-regulation-for-the-sharing-economy>>.
- Gawer, Annabelle (2014). “Bridging Differing Perspectives on Technological Platforms: Toward an Integrative Framework.” *Research Policy*. 43(7): 1239-1249.
- Ge, Yanbo, Christopher R. Knittel, Don MacKenzie, and Stephen Zoepf (2016). “Racial and Gender Discrimination in Transportation Network Companies.” NBER Working Paper

- No. 22776. <<https://www.nber.org/papers/w22776.pdf>>.
- Gershman, Jacob (2016). "Uber Antitrust Lawsuit Clears Court Hurdle in New York." *The Wall Street Journal*. (April 1). <<https://blogs.wsj.com/law/2016/04/01/uber-antitrust-lawsuit-clears-court-hurdle-in-new-york/>>.
- Hacker, Jacob S. (2008). *The Great Risk Shift: The New Economic Insecurity and the Decline of the American Dream*. 2<sup>nd</sup> Ed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all, Jonathan V. and Alan B. Krueger (2016). "An Analysis of the Labor Market for Uber's Driver-Partners in the United States." NBER Working Paper No. 22843. <<https://www.nber.org/papers/w22843.pdf>>.
- Hill, Steven (2015). *Raw Deal: How the "Uber Economy" and Runaway Capitalism Are Screwing American Workers*. New York, NY: St. Martin's Press.
- Horton, John J. and Richard J. Zeckhauser (2016). "Owning, Using and Renting: Some Simple Economics of the "Sharing Economy"." NBER Working Paper No. 22029. <<https://www.nber.org/papers/w22029.pdf>>.
- Ikkala, Tapio and Airi Lampinen (2015). "Monetizing Network Hospitality: Hospitality and Sociability in the Context of Airbnb." CSCW 2015 proceedings of 18th ACM Conference on Computer-Supported Cooperative Work and Social Computing(March 14-18. Vancouver, BC, Canada). pp. 1033-1044.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75522360\\_Monetizing\\_Network\\_Hospitality\\_Hospitality\\_and\\_Sociability\\_in\\_the\\_Context\\_of\\_Airbnb](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75522360_Monetizing_Network_Hospitality_Hospitality_and_Sociability_in_the_Context_of_Airbnb)>.
- Interian, Johanna (2016). "Up in the Air: Harmonizing the Sharing Economy Through Airbnb Regulations." *Boston Colleg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Review*. 39(1): 129-161.
- Irwin, Neil (2016). "With 'Gigs' Instead of Jobs, Workers Bear New Burdens." *The New York Times* (March 31). <<https://www.nytimes.com/2016/03/31/upshot/contractors-and-temps-accounted-for-all-of-the-growth-in-employment-in-the-last-decade.html>>.
- John, Nicholas A. (2013). "The Social Logics of Sharing." *The Communication Review*. 16(3): 113-131.
- Kalamar, Anthony (2013). "Sharewashing Is the New Greenwashing." *OpEdNews* (May 13). <<https://www.opednews.com/articles/Sharewashing-is-the-New-Gr-by-Anthony-Kalamar-130513-834.html>>.
- Kalleberg, Arne L. (2013). *Good Jobs, Bad Jobs: The Rise of Polarized and Precarious Employment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1970s to 2000s*. (1st paperback ed.). New York, NY: Russell Sage Foundation.
- Katz, Lawrence F. and Alan B. Krueger (2016). "The Rise and Nature of Alternative Work Arrangements in the United States, 1995-2015." NBER Working Paper No. 22667. <<https://www.nber.org/papers/w22667.pdf>>.

- Kenney, Martin and John Zysman (2015). "Choosing a Future in the Platform Economy: The Implications and Consequences of Digital Platforms." in Kauffman Foundation New Entrepreneurial Growth Conference. Discussion Paper (Amelia Island Florida, June 18-19). <<https://brie.berkeley.edu/sites/default/files/platformeconomy2distributejune21.pdf>>.
- Kenney, Martin and John Zysman (2016). "The Rise of the Platform Economy." *Issues in Science and Technology*. 32(3): 61-69.
- Ladegaard, Isak (2018). "Hosting the Comfortably Exotic: Cosmopolitan Aspirations in the Sharing Economy." *The Sociological Review*. 66(2): 381-400.
- Lampinen, Airi and Coye Cheshire (2016). "Hosting via Airbnb: Motivations and Financial Assurances in Monetized Network Hospitality." CHI 2016 Proceedings of the 2016 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pp. 1669-1680). New York, NY: ACM. <<http://www.mobilelifecentre.org/sites/default/files/Airbnb%20Submitted%20Camera.pdf>>.
- Laouénan, Morgane and Roland Rathelot (2017). "Ethnic Discrimination on an Online Marketplace of Vacation Rentals." Centre for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Global Economy. Department of Economics. Warwick University. Working Paper Series No. 318. <[https://warwick.ac.uk/fac/soc/economics/research/centres/cage/manage/publications/318-2017\\_rathelot.pdf](https://warwick.ac.uk/fac/soc/economics/research/centres/cage/manage/publications/318-2017_rathelot.pdf)>.
- McLaren, Duncan and Julian Agyeman (2015). *Sharing Cities: A Case for Truly Smart and Sustainable Cities*. Cambridge, MA: MIT Press.
- Möhlmann, Mareike (2015). "Collaborative Consumption: Determinants of Satisfaction and the Likelihood of Using a Sharing Economy Option Again." *Journal of Consumer Behaviour*. 14(3): 193-207.
- Monroy-Hernández, Andrés (2014). "Commentary on Debating the Sharing Economy." *Great Transition Initiative*. <<https://www.greattransition.org/commentary/andres-monroy-hernandez-debating-the-sharing-economy-juliet-schor>>.
- O'Donovan, Caroline and Jeremy Singer-Vine (2016). "How Much Uber Drivers Actually Make Per Hour." *BuzzFeed News* (June 22). <<https://www.buzzfeednews.com/article/carolineodonovan/internal-uber-driver-pay-numbers>>.
- Oliver, Melvin and Thomas M. Shapiro (2006). *Black Wealth / White Wealth: A New Perspective on Racial Inequality* (2nd Edition). New York, NY: Routledge.
- Parigi, Paolo and Bogdan State (2014). "Disenchanted the World: The Impact of Technology on Relationships." *Social Informatics*. 8851: 166-182.
- Parigi, Paolo, Diana Dakhllallah, Rense Corten, and Karen Cook (2013). "A Community of Strangers: The Dis-Embedding of Social Ties." *PLoS ONE*. 8(7): e67388: 1-7.
- Pasquale, Frank A. (2013). "Paradoxes of Digital Antitrust: Why the FTC Failed to Explain Its Inaction on Search Bias." *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 Occasional Paper Series* (July 2013). <<https://digitalcommons.law.umaryland.edu/cgi/viewcontent.cgi?article=>

2437&context=fac\_pubs>.

- Pasquale, Frank A. (2015). *The Black Box Society: The Secret Algorithms That Control Money and Inform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국역: 이시은 역, 『블랙박스 사회: 돈과 빅데이터를 통제하는 정보 제국주의의 비밀』, 안티고네, 2016).
- Pasquale, Frank A. (2016). “Two Narratives of Platform Capitalism.” *Yale Law and Policy Review*. 35(1): 309-319.
- Piketty, Thomas (2014).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Cambridge, MA: Belknap Press (국역: 장경덕 외 역, 『21세기 자본』, 글항아리, 2014).
- Quattrone, Giovanni, Davide Proserpio, Daniele Quercia, Licia Capra, and Mirco Musolesi (2016). “Who Benefits from the “Sharing” Economy of Airbnb?” WWW 2016 Proceedings of the 2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rld Wide Web (pp. 1385-1394). April 11-15. Montréal, Québec, Canada. International World Wide Web Conferences Steering Committee. Republic and Canton of Geneva, Switzerland.
- Ravenelle, Alexandra J. (2016). “A Return to Gemeinschaft: Digital Trails, Employability and the Sharing Economy.” In J. Daniels, K. Gregory & T. M. Cottom (Eds.). *Digital Sociologies* (pp. 25-43). Bristol, U.K.: Policy Press.
- Ravenelle, Alexandra J. (2017). “Sharing Economy Workers: Selling, not Sharing.” *Cambridge Journal of Regions, Economy and Society*. 10(2): 281-295.
- Reich, Robert B. (2015). “The Share-the-Scraps Economy.” the Robert Reich website. <<http://robertreich.org/post/109894095095>>.
- Richardson, Lizzie (2015). “Performing the Sharing Economy.” *Geoforum*, 67: 121-129.
- Rosenblat, Alex and Luke Stark (2015). “Algorithmic Labor and Information Asymmetries: A Case Study of Uber’s Driver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10: 3758-3784.
- Santana, Jessica and Paolo Parigi (2015). “Risk Aversion and Engagement in the Sharing Economy.” *Games*, 6(4): 560-573.
- Scheiber, Noam (2017). “How Uber Uses Psychological Tricks to Push Its Drivers’ Buttons.” *The New York Times* (April 2).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17/04/02/technology/uber-drivers-psychological-tricks.html>>.
- Scholz, Trebor (Ed). (2013). *Digital Labor: The Internet as Playground and Factory*. New York, NY: Routledge.
- Scholz, Trebor. (2014). “Platform Cooperativism vs. the Sharing Economy.” (December 5). <<https://medium.com/@trebors/platform-cooperativism-vs-the-sharing-economy-2ea737f1b5ad>>.
- Scholz, Trebor (2016). *Uberworked and Underpaid: How Workers Are Disrupting the Digital Economy*. Cambridge, UK: Polity Press.
- Schor, Juliet B. (2014). “Debating the Sharing Economy,” *Great Transition Initiative* (October 2014). <<https://www.greattransition.org/publication/debating-the-sharing-economy>>.
- Schor, Juliet B. (2015). “The Sharing Economy: Reports from Stage One.” <<https://www.bc.edu>>

- [/content/dam/files/schools/cas\\_sites/sociology/pdf/TheSharingEconomy.pdf](/content/dam/files/schools/cas_sites/sociology/pdf/TheSharingEconomy.pdf)>.
- Schor, Juliet B. (2017). “Does the Sharing Economy Increase Inequality Within the Eighty Percent? Findings from a Qualitative Study of Platform Providers.” *Cambridge Journal of Regions, Economy and Society*. 10(2): 263-279.
- Schor, Juliet B., Will Attwood-Charles, Mehmet Cansoy, Isak Ladegaard, Robert Wengronowitz (2017). “Dependence and Precarity in the Platform Economy.”  
<[https://www.bc.edu/content/dam/files/schools/cas\\_sites/sociology/pdf/Dependence%20and%20Precarity%20Feb%202017.pdf](https://www.bc.edu/content/dam/files/schools/cas_sites/sociology/pdf/Dependence%20and%20Precarity%20Feb%202017.pdf)>.
- Schor, Juliet B. and Connor J. Fitzmaurice (2015). “Collaborating and Connecting: The Emergence of the Sharing Economy.” In Lucia A. Reisch and John Thøgersen (Eds.). *Handbook of Research on Sustainable Consumption* (pp. 410 - 425). Cheltenham, UK: Edward Elgar.
- Schor, Juliet B., Connor J. Fitzmaurice, Lindsey B. Carfagna, Will Attwood-Charles, and Emilie Dubois Poteat (2016). “Paradoxes of Openness and Distinction in the Sharing Economy.” *Poetics*. 54: 66-81.
- Slee, Tom (2015). *What's Yours Is Mine: Against the Sharing Economy*. New York, NY: OR Books.
- Smith, Aaron (2016). “Shared, Collaborative and On Demand: The New Digital Economy.” Pew Research Center (May 19). <[http://www.pewresearch.org/wp-content/uploads/sites/9/2016/05/PI\\_2016.05.19\\_Sharing-Economy\\_FINAL.pdf](http://www.pewresearch.org/wp-content/uploads/sites/9/2016/05/PI_2016.05.19_Sharing-Economy_FINAL.pdf)>.
- Standing, Guy (2011). *The Precariat: The New Dangerous Class*. London, UK: Bloomsbury(국역: 김태호 역, 『프레카리아트: 새로운 위험한 계급』, 박종철출판사, 2014).
- Sundararajan, Arun (2016). *The Sharing Economy: The End of Employment and the Rise of Crowd-Based Capitalism*. Cambridge, MA: MIT Press(국역: 이은주 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유경제』, 교보문고, 2018).
- Telles, Rudy Jr. (2016). “Digital Matching Firms: A New Definition in the “Sharing Economy” Space.” ESA Issue Brief #01-16. U.S. Department of Commerce. Economics and Statistics Administration. Office of the Chief Economist.  
<<https://www.commerce.gov/sites/default/files/migrated/reports/digital-matching-firms-new-definition-sharing-economy-space.pdf>>
- Tomassetti, Julia (2016). “From Hierarchies to Markets: FedEx Drivers and the Work Contract as Institutional Marker.” *Lewis & Clark Law Review*. 19(4): 1083-1151.
- Turkle, Sherry (2012). *Alone Together: Why We Expect More From Technology and Less From Each Other*. New York, NY: Basic Books(국역: 이은주 역, 『외로워지는 사람들 : 테크놀로지가 인간관계를 조정한다』, 청림출판, 2012).
- Turner, Fred. (2006). *From Counterculture to Cyberculture: Stewart Brand, the Whole Earth Network, and the Rise of Digital Utopianis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Vallas, Steven and Christopher Prener (2012). “Dualism, Job Polarization,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Precarious Work.” *Work and Occupations*. 39(4): 331-353.
- Zelizer, Viviana A. Rotman (1997). *The Social Meaning of Mone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Zelizer, Viviana A. Rotman (2005). *The Purchase of Intimac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국역: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역, 『친밀성의 거래』, 에코리브르, 2009).
- Zervas, Georgios, Davide Proserpio, and John Byers (2016). “The Rise of the Sharing Economy: Estimating the Impact of Airbnb on the Hotel Industry.” (Nov 18, 2016). Boston U. School of Management Research Paper No. 2013-16. <<https://ssrn.com/abstract=2366898> or <http://dx.doi.org/10.2139/ssrn.2366898>>.



동향과 이슈 2018-03

발행일 2018. 11.

발행처 서울노동권익센터

발행인 문종찬

03147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10층 Tel.02)6925-4349 Fax.070-8250-4349 [www.labors.or.kr](http://www.labors.or.kr)